

아큐브 S^3
두 개의 문, 천 개의 소리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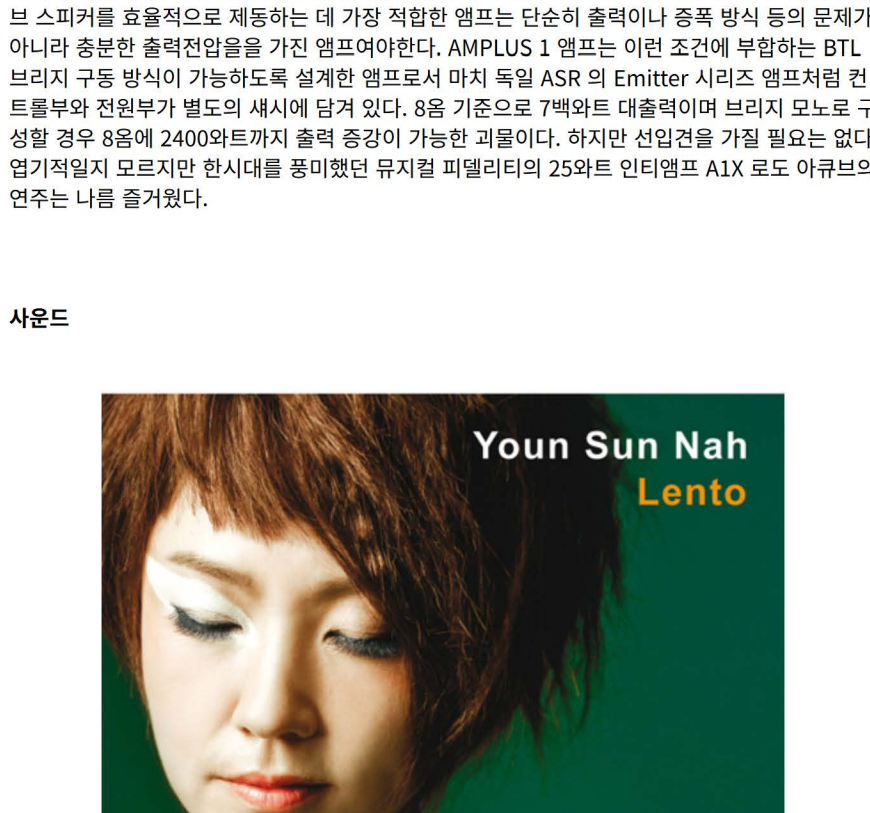
Figure 1 consists of two side-by-side line graphs. Both graphs have 'Number of trials' on the x-axis (ranging from 0 to 10) and 'Number of correct responses' on the y-axis (ranging from 0 to 10). The left graph shows a linear relationship, with a straight line starting at (0,0) and ending at (10,10). The right graph shows a non-linear relationship, with a curve that starts at (0,0) and increases at a decreasing rate, reaching approximately 8.5 correct responses at 10 trials.



다. 주파수 반응이 매우 빠르며 드라이버 유닛이나 캐비닛에 의한 주파수 왜곡이 현저하게 적다. 고역, 중역, 저역이 다른 드라이버로 작동하면서 생기는 시간차 왜곡 또한 이론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크로 수음관 원포인트 녹음을 재생하면 마치 그 공간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 입체적인 음장감과 이미징이 눈앞에 그려진다. 시간차 왜곡이 현저하게 사라지면 이런 음장감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다. 좌/우 채널, 두 개의 +, - 신호만으로 양 채널의 소리를 인식, 그 차이를 분석해 역기의 전/후, 좌/우, 위/아래 등 공간 정보를 추론하는 사람의 인지 방식 때문이다.



수년 전 국내 오디오쇼에서 들었던 아큐브 스피커의 소리는 아직도 귀에 선연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당시 매칭한 앰프는 꽤 저렴한 쿼드 앰프였고 아큐브의 정전형 패널은 매우 아름다운 음색과 홀로그래픽 음장감으로 보답했다. 하지만 아큐브 또한 드라이빙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를 또 한번 개선한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다. 새로운 모델에서 아큐브는 패널 유닛은 물론 내부 송출 트랜스포머 그리고 스피커 하우징 등에 변화를 주어 재생 음압을 3dB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원자재 가공과정 또한 크게 개선해 기존 모델보다 허용입력을 높였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빗소리와 바람 부는 소리 또는 번개 치는 소리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보편적인 다이내믹 드라이브를 사용한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에서는 절대 따라올라야 할 수 없는 소리다. 나폴음의 아리랑에서 초반 오르골 소리가 이렇게 투명한 줄은 미처 몰랐다. 극도로 미세한 떨림과 그로 인한 공기의 울림이 소름 돋을 만큼 투명하다. 근음만 명료하게 표현되는 것을 넘어 배음도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펼쳐지는데 이 소리는 마치 조용한 계곡에서 듣는 자연음을 연상시킨다. 대체로 정전형의 사운드를 여러 번 접했으나 아큐브의 소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청자를 안내한다. 중역대에서 고역까지 아주 기어간하듯 바림처럼 또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음표를 지켜보는 듯한 낭만적인 기분에 빠져들었다.



중역과 지역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디테일을 보여준다. 인위적인 색조나 조미료가 느껴지지 않는 청정의 맛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다. 피아노가 섬광처럼 번쩍이며 무대를 가르고 사라진다. 엘리스 사라 오트의 녹턴을 들어보면 바로 콘서트 홀에서 직접 감상하는 듯 소리와 공간감이 나를 공연장 안으로 밀어 넣는다.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은 아쿠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일렉트릭 악기보다는 이러한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한 레코딩에서 아쿠브의 이상이 더욱 잘 드러난다. 엘리스 사라 오트의 피아노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바이올린은 무대를 가득 메우며 전/후 무대는 물론 상/하 높이가치 조망해준다. 웬만한 스피커에서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들려 잠시 설혹한 느낌마저 풍긴다.



10